

운동주 동시의 두 지향성

강 영 기*

차 례

- I. 서론
- II. 운동주 동시 창작 전개 과정
- III. 운동주 동시의 두 지향성
 - 1. 동심 지향성
 - 2. 현실 지향성
- IV. 결론

I. 서론

운동주는 한국 현대시사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시인 중 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1948년에 출간되기 전까지 그는 공식적으로 ‘시인’이라는 이름마저도 부여받지 못했다.¹⁾ 그러한 그가 사망 이후에 한국 현대시사에서 참회의 시인 또는 저항 시인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1) 운동주가 사망하기까지 활자화되어 발표된 작품은 6편의 동시와 세 편의 시, 그리고 한 편의 산문이 전부이다. 하지만 그것도 본격적인 문단활동과는 거리가 먼 『카톨릭 소년』 등 아동 잡지와, 조선일보 학생란 『활천』, 『문우』 등이 전부였다. 이렇게 볼 때 운동주는 살아있을 때 시인으로서의 활동은 거의 없었던 셈이다.[이 건청, 『운동주』(진국대학교 출판부, 1994), p. 62].

이라는 이름으로 한 획을 긋는 데에는 그의 시가 추구한 서정적 자아의 순수함도 있지만 일제 강점이라는 완강하고 부정직한 시대의 현실 인식과 그 현실에 대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순수성과 현실 저항성은 그가 시를 통해 추구한 지향성²⁾이라 할 수 있다.

윤동주의 시에 대한 연구는 1948년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발간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비평 작업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시 117편 중 동시 범주에 드는 작품 35편 정도에 대한 연구와 비평 작업³⁾은 그의 시 전체적인 연구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첫째, 그의 동시를 단순히 시를 쓰기 위한 과도기의 습작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 둘째, 그의 동시가 단순하고 평면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 기인한다. 하지만, 시에 나타나는 지향성의 측면에서 보면 그의 동시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 글은 윤동주 시에 나타난 동시 작품을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그의 동시에서도 그의 시에 나타난 ‘순수성’과 ‘현실 저항성’이라는 지향성이 나타나는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동시를 ‘어린이들이 쓰는 시’가 아니라 어린이다운 심리와 정서로 어른과 어린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성인이 쓴 시⁴⁾라고 규정할 때 그 속에는 분명 인간 의식의 근본

2) 지향성이란 용어는 브레너노에 의하여 현대 철학에 도입된 이후 훗설에 의해 확대되어 현상학에 적용된 개념으로 의식의 본질적 구조를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한 개념이다. “모든 의식은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인데, 의식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무엇을 향해 있으며 인간과 대상과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지적·감성적 체험을 특정 지우는 것이 지향성이라는 것이다. 훗설은 “인식의 체험은, 그것의 본질에 속한 것인데, 지향을 갖는다. 즉 그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이러저러한 대상성과 관계한다.”를 통해 지향성을 설명하고 있다. [최동호, 『윤동주 시의 의식 현상』, 권영민 엮음, 『윤동주 전집-2』(문학사상사, 1995), pp. 483~484].

3) 윤동주 동시에 대한 연구 및 비평 작업은 다음과 같다.
 김열규, 『윤동주론』, 『국어국문학』(국어국문학회, 1964).
 김홍규, 『윤동주론』, 『창작과 비평』(창작과 비평사, 1974).
 김수복, 『윤동주의 동시 연구』(한국아동문학연구)(일지사, 1980).
 신현봉, 『윤동주의 동시지향성 연구』(한양대 교대원 석사논문, 1986).
 구경분, 『윤동주 동시 연구』(인하대 교대원 석사논문, 1996).
 고희진, 『윤동주의 동시 연구』(어문학연구 제 5집)(상명대 어문학연구소, 1997).

적인 속성으로서 어떤 지향성이 놓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식 현상의 주체 자로서 시인이 그 의식을 표출한 작품을 분석할 때 대상과 의식 주체의 관계는 의식 현상의 지향성을 규명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사용한 텍스트는 『윤동주 전집-1』(문학사상사, 1995)⁵⁾에 수록된 작품으로 한다.

II. 윤동주 동시 창작 전개 과정

윤동주의 시에서 동시가 창작되기 시작한 것은 1935년에 창작된 「조개 껍질」부터이다. 하지만, 그가 명동 소학교 시절부터 동화와 동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린이』, 『아이생활』 등의 아동잡지를 구독하여 읽었다는 점⁶⁾ 등에서 미루어 볼 때 이미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또한, 어린 시절 독서를 통해 형성된 배경지식은 그가 동시를 창작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한편, 중학 시절 윤동주의 서가에 꽂혔던 책들을 살펴보면 정지용의 『정지용 시집』, 변영로의 『조선의 마음』, 주요한의 『아름다운 새벽』, 김동환의 『국경의 밤』,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광수·주요한·김동환의 합동 시집 『3인 시가집』, 양주동의 『조선의 맥박』, 이은상의 『노산 시조집』, 윤석중의 『윤석중 동요집』과 『잃어버린 땀』, 황순원의 『방가』, 김영랑의 『영랑 시집』, 백석의 『사슴』, 그리고 『을해 명시선집』 등이 놓여 있었다. 이 중에서도 『아동문학집』 속의 이광수의 동화라든가 박목월의 「나루터」, 정지용의 「말」 등에는 자신의 느낌을 간단히 적은 메모를 해 놓았다⁷⁾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그의 독서 방향은 동시를 창작하는 데 영향을

4) 이재철, 『세계아동문학대사전』(계몽사, 1989), p. 74.

5) 권영민 엮음, 『윤동주 전집-1』(문학사상사, 1995).

6) 송우혜, 『윤동주 평전』(세계사, 1998), p. 79.

7) 이진철, 『윤동주』(건국대학교 출판부, 1994), pp. 23~24.

주고 있다. 특히 정지용의 경우는 그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그가 평생을 두고 가장 좋아한 시인⁸⁾이 바로, 정지용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때 『정지용 시집』에서 동시⁹⁾가 차지했던 위상과, 시기적으로 『정지용 시집』 출간 이후 그가 보인 변화 즉 그의 시에서 동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일정 정도 정지용의 영향을 받고 있다.

별똥 떠러진 곳,
마음해 두었다
다음날 가보려,
벼르다 벼르다
인젠 다 자랐오.

— 정지용, 「별똥」 전문¹⁰⁾

눈 위에서
개가
꽃을 그리며
뛰오.

— 윤동주, 「개」 전문¹¹⁾

인용된 두 시의 공통점은 시의 형태상 시행이 짧은 것뿐만 아니라, 시인의 사물을 보는 시각이 스케치하듯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그것은 “~하니 ~하오”라는 시 어구를 통해 매우 잘나적으로 순간의 느낌을 시로

8) 송우혜, 『윤동주 평전』(세계사, 1998), p. 152.

9) 정지용의 시에서 동시는 『정지용시집』 제 3부에 수록된 「별똥」, 「서쪽하늘」, 「뜨기」, 「감나무」, 「한울 혼자보고」, 「달래와 (人形)와 아주머니」, 「산엿색시 들녘사내」, 「산에서 온 새」, 「내 맘에 맞는 이」, 「무어래요」, 「숨기내기」, 「비들기」, 「할아버지」, 「산 넘어 저쪽」, 「해바라기」, 「말」, 「옴바가시고」, 「기차」, 「산소」, 「종달새」, 「바람」 과 시집에 수록되지 않은 「넋니약이 구절」 1편 등이 있다.

10) 김학동 편, 『정지용 전집-1』(민음사, 1991), p. 84.

11) 이 글에 인용된 윤동주 시의 텍스트는 『윤동주 전집-1』(문학사상사, 1995)에 의거함. 뒤에 나오는 인용시들에 대한 각주는 생략함.

표현한다. 정지용의 「별똥」에는 어린 시절 하늘에서 긴 꼬리를 만들며 떨어지는 별똥에 대한 신비로움과 동경을 보여준다. 그리고 “벼르다 벼르다”라는 표현을 통해 별똥이 떨어진 곳에 가기를 염원하지만 끝내는 별똥이 떨어진 곳에 가보지 못한 아쉬움을 “인젠 다 자랐오.”로 표현하면서 별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곳에 가보지 못한 화자의 감정까지를 스케치하듯 형상화한다. 또한, 윤동주의 「개」에서도 사물을 보는 시각이 스케치하듯 나타난다. 시인은 눈 위에 개가 돌아다니며 만든 발자국을 꽃으로 치환함으로써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자유분방함을 “꽃을 그리며 뛰오”를 통해 눈에 보이듯이 그려낸다. 이렇듯 짧은 단형의 동시와 순간의 느낌만을 잡아서 시화하고 있다는 점은 두 시인 사이의 영향 관계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윤동주가 진학했던 평양의 숭실학교가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를 당하게 되자 그는 용정으로 돌아와 광명중학교 4학년에 편입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보다 정열적으로 동시를 창작하게 된다.¹²⁾ 특히 「카톨릭 소년」은 숭실학교 재학 당시에 썼던 「병아리」, 「오줌싸개 지도」, 「빗자루」, 「무얼 먹구 사나」, 「고향집」, 「거짓부리」 등을 발표하는 공간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눈여겨 볼 점은 필명으로 ‘童舟’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童舟’라는 필명의 사용은 동시에 대한 그의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을 토대로 윤동주가 창작한 동시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그의 동시는 1935년 「조개껍질」로부터 시작한다. 1936년에는 20여편의 작품을 발표한다. 「오줌싸개 지도」, 「기왓장 내외」, 「병아리」, 「고향집」, 「햇비」, 「빗자루」, 「굴뚝」, 「비행기」, 「봄」, 「무얼 먹고 사나」, 「버선본」, 「사과」, 「닭」, 「편지」, 「참새」, 「개」, 「눈」, 「겨울」, 「호주머니」 등이 그것이다. 또한 1937년에는 6편이 동시가 창작되는데, 「할아버지」, 「반딧불」, 「거짓부리」, 「들 다」, 「나무」, 「만돌이」이다. 1938년에는 「산울림」, 「해바라기 얼굴」, 「

12) 고희경, 「윤동주의 동시 연구」 『어문학 연구 5집』(상명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7), p. 90

귀뚜라미와 나와», 「햇빛·바람», 「애기의 새벽」 등이 창작된다. 이를 통해 그는 민족적인 정서와 풍습을 통한 동심의 밝은 세계, 그리고 상실의 아쉬움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과 현실 세계에서의 삶의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III. 운동주 동시에 나타나는 지향성

의식 자체는 이미 행동을 구성한다. 훗설(Husserl)은 원심적 방식을 “지향성(intentionalite)”이라 하였다. 즉 “모든 의식은 어떤 것에 대한 의식이다.” 이런 훗설의 의식은 “의식의 상태(etat de conscience)”가 아니라, “상태의 의식(conscience d'etat)”이다.¹³⁾ 의식의 상태가 의식의 위상적 기능(fonction)인 지각·추억·감동이라면, 상태의 의식은 어떤 작용 능력(faculte)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운동주 동시에 나타나는 목적성과 방향성인 상태의 의식 바탕으로 지향성을 구명함으로써 그의 시에서 나타난 순수성과 현실 저항성이 그의 동시에도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동심 지향성

운동주 동시에 나타나는 하나의 지향성은 동심 지향성이다. 그는 동심 지향성을 형상화하기 위해 재치와 기지를 시작(詩作) 방법으로 활용한다. 재치와 기지는 독자에게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효용의 가치를 주며, 또한 독자는 이를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발견의 기쁨 그리고 그 속에서 그려지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다음에 제시되는 작품은 이러한 재치와 기지가 담긴 예이다.

13) <http://www.masilga.com/philosophy/Concept/Concepts02.asp#1> 참조.

요오리 조리 베면 저고리 되고
 이이렇게 베면 큰 총 되지.
 누나하고 나하고
 가위로 종이 쓸았더니
 어머니가 빗자루 들고
 누나 하나 나 하나
 엉덩이를 때렸소
 방바닥이 어지럽다고-

아아니 아니
 고 놈의 빗자루가
 방바닥 쓸기 싫으니
 그랬지 그랬어
 껌씹하여 벽장 속에 감춰더니
 이튿날 아침 빗자루가 없다고
 어머니가 야단이지요.

—「빗자루」 전문

인용된 시에서 시인은 어린 화자를 통해 종이접기 놀이를 하다가 방을 어지럽혔다고 어머니에게 매 맞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린 화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빗자루는 방을 쓸 때 사용하는 청소 도구인데 그것으로 매를 맞으니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인은 이런 화자의 기분을 “아아니 아니 고 놈의 빗자루가 방바닥 쓸기 싫으니 그랬지 그랬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들이 방을 어지럽힌 것에 대한 정당함과 빗자루가 방바닥을 쓸기 싫어서 청소를 하지 않은 직무태만으로 돌려버린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시인은 어린 화자의 재치를 보여준다. 한편, 시인은 빗자루를 벽장 속에 감춰버리고 이튿날 어머니께서 방을 청소하려고 하는데 빗자루를 찾지 못해 찢절때는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어린 화자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재치와 기지를 통해 어제 매 맞았던 일에 대한 통쾌한 복수를 한다. 다음에 제시되는 작품 역시 어린 화자의 재치와 기지가 나타난다.

가을 지난 마당은 하이얀 종이
참새들이 글씨를 공부하지요.

짜액짜액 입으로 받아 읽으며
두 발로는 글씨를 연습하지요.

하로 종일 글씨를 공부하여도
쩍 자 한 자밖에는 더 못 쓰는 걸.

—「참새」전문

시인은 눈 내린 마당에 참새들이 걸터다니는 모습을 어린 화자의 시각에서 그려낸다. 그래서 어린 화자는 눈 위에 새겨진 참새의 발자국을 어린 아이들이 공부한 글씨 연습으로 생각한다. 이런 모습을 시인은 “짜액 짜액 입으로 받아 읽으며 두 발로는 글씨를 연습하지요.”로 표현한다. 이 속에서 어린 화자는 어린 아이와 참새를 동일시한다. 하지만, 참새는 어린 화자의 시각처럼 글씨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쩍”하고 울 수밖에 없다. 여기서 시인의 기지가 발휘 된다. 그것은 “하로 종일 글씨를 공부하여도 쩍 자 한 자밖에는 더 못 쓰는 걸.”이라는 표현이다. 이를 통해 시인은 어린 화자의 입장에서 자연 현상을 인식한다.

운동주의 동시에서 동심 지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은 재치와 기지를 활용한 시작(詩作) 방법에 있다. 그는 이를 통해 어린 화자의 시각에서 ‘순수’함을 이야기한다. 어린 동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순수의 세계이다. 그는 동시 창작을 통해 순수의 세계를 지향한다. 그리고 이 속에다 밝고 명량한 분위기를 담아낸다.

운동주가 동시를 통해 추구한 세계는 동화적인 화해의 세계이며, 순수의 세계이다. 그래서 그의 동시는 유년의 평화와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¹⁴⁾이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그가 추구한 동심 지향성을 통해 구현된다. 한편 그는 동심 지향성을 보여주기¹⁵⁾ 위해 어린 화자의 시각에서 원초적 자

14) 김홍규, 「운동주론」, 권영민 엮음, 『운동주 전집-2』(문학사상사, 1995), p. 319.

연을 형상화한다. 그것은 달님, 해님, 바닷가, 눈, 산골짜크 또는 누나, 아기, 엄마, 동생 등 인간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사물이나 심상으로 나타난다. 다음에 제시되는 작품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우리 애기는
아래 발치에서 코을코을,

고양이는
부뚜막에서 가롱가롱,

애기 바람이
나뭇가지에서 소울소울,

아저씨 해님이
하늘 한가운데서 쨍쨍쨍.

—「봄, 전문

- 15) 윤동주의 동시에 나타나는 동심 지향성을 보여주는 심상과 시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문자, 『윤동주 시 연구』(성신여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6), p. 34. 참조].

천	체	햇님, 햇빛, 햇비, 달조각, 하늘, 별나라, 달, 무지개
계	절	새벽, 저녁, 겨울, 눈(雪), 바람
향	토	산울림, 길, 발, 산골, 두만강, 고향, 조개껍데기, 바닷물소리, 바다
동	물	까치, 닭, 고양이, 물고기, 새, 병아리, 검둥이(개), 참새, 귀뚜라미,
곤	충	반딧불
식	물	잔디, 밭, 해바라기, 나무, 전봇대, 감자, 옥수수대, 숲, 꽃, 사과, 감자
사	람(인체)	애기, 누나, 외아들, 엄마, 잔등, 손가락, 얼굴
의·식·주		문풍지, 장, 호주머니, 처마, 시래기, 지붕, 이불, 가위, 오막살이, 굴뚝, 저고리, 빗자루, 방바닥, 기왓장, 빨래줄
기	타	들, 말뚝, 습자지, 몽당연필, 버선본, 지도, 시계, 총, 비행기

시인은 “애기, 고양이, 바람, 해님” 등 원초적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봄의 느낌을 형상화한다. 그래서 시인은 한적한 봄날 아기와 고양이가 즐기고 있는 집안의 풍경과 바람이 산들 불고 햇별이 내리쬐는 자연의 풍경을 대조적으로 설정하여 평화로운 어느 봄날을 그려낸다. 또한 시인은 “코올코올, 가릉가릉, 소울소울, 째앵째앵” 등 감각적인 첩어를 사용하여 ‘봄’이 주는 계절적 감각을 한층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낸다. 이처럼 시인은 감각적인 첩어의 사용과 의인화된 원초적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동시의 시작(詩作) 방법으로 활용한다. 그것은 봄날의 평화스러운 계절적 감각과 그것을 바라보는 어린 화자의 맑고 밝은 동심의 세계를 통해 동심 지향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다음에 인용되는 작품 역시 원초적 자연 형상화를 통해 동심 지향성을 보여준다.

지난밤에
눈이 소오복이 왔네

지붕이랑
길이랑 밭이랑
추워한다고
덮어 주는 이불인가 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내리지.

—「눈」 전문

시인은 “눈”과 “이불”이 만든 비유를 통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묘사한다. 어린 화자의 시각에서 “눈”과 “이불”은 덮어준다는 기능을 지닌 동일시된 따뜻한 존재이다. 그래서 화자는 밤사이 내린 많은 눈을 바라보며 “지붕, 길, 밭”이 너무 춥다고 “이불”처럼 “눈”으로 세상을 덮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화자가 인식할 때 “눈”은 추운 겨울에만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추운 겨울이 추울 수 없는 이유는 어린 화자의 맑고 고

운 마음에서 비롯된 ‘눈’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그것은 세상을 덮어 주는 따뜻함이다. 이렇듯 시인은 어린 화자를 통해 “눈”을 따뜻한 “이불”로 치환함으로써 이 속에서 밝고 맑은 동심 세계를 그려낸다.

이상에서 나타난 윤동주 동시의 동심 지향성은 단순히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시인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동심 지향을 통해 순수를 말하고 싶은 시인의 욕망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욕망을 시에 담아내기 위해 시작(詩作)의 방법으로 재치와 기지를 활용하며, 또한 원초적 자연의 이미지를 시로 형상화한다. 이 속에서 그는 ‘순수’라는 민족적인 정서와 동심의 맑은 세계를 그려낸다.

2. 현실 지향성

윤동주의 시 흐름에서 동시 창작은 1930년대 후반에서부터 1940년대 초까지 이루어진다. 한국현대문학의 흐름으로 볼 때 이 시기는 꿈의 세계나 환상을 통한 상상의 세계를 그려내기보다는 일제 강점하의 사회적, 정치적 여건 아래서 이에 대응하려는 민족적 자각을 문학으로 표출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그의 동시 역시 현실 지향성을 토대로 민족의 동질성 상실이라는 현실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윤동주의 동시에 나타나는 지형성의 또 다른 한 축은 현실 지향성이다. 그는 이를 드러내기 위해 생활 현실의 사실적 표현과 그림움과 상실의 형상화를 통해 현실 인식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에 제시된 작품은 생활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몽기몽기 웨인 연기 대낮에 솟나,

감자를 굽는 게지 총각 애들이
깜박깜박 검은 눈이 모여 앉아서
입술에 꺼멥게 솟을 바르고
옛이야기 한 커리에 감자 하나씩.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살랑살랑 솟아나네 감자 굽는 내.

—「굴뚝」 전문

이 시는 당시 산골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시인은 “산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을 공간적 상황으로 제시하고 산골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깜박깜박 검은 눈”들이 모여 앉아서 “옛이야기 한 커리에 감자 하나씩”을 통해 제시한다. 또한 시인은 “몽기몽기, 깜박깜박, 살랑살랑” 등의 첩어를 사용하여 눈에 보이듯 감자 굽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산골 삶의 정겨움과 평화스러움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이 속에는 산골에 사는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과 생활의 한 단면이 감자 굽는 냄새와 같이 정겹게 담겨져 있다. 다음에 제시된 작품 역시 삶의 한 단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처마 밑에
시래기 다래미
바삭바삭
추워요.

길바닥에
말뚱 동그래미
달랑달랑
얼어요.

—「겨울」 전문

이 시에서 시인은 추위가 극심한 북쪽 지방의 겨울 모습을, 처마 밑 시래기 타래가 찬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 부딪쳐 소리 내는 모습과 길바닥에 떨어진 말뚱이 돌맹이처럼 단단히 얼어붙는 모습을 통해 그려낸다. 또한 시인은 삶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시래기’, ‘다래미’의 ‘이’운이 환기하는 어두운 색조와 이를 감각화하기 위한 ‘바삭바삭’의 첩어의 사

용, '말뚝', '동그라미'의 'ㅇ'과 어울리는 '달랑달랑'의 첩어와 역시 이에 호응하는 '얼어요'의 언어구사¹⁶⁾를 통해 말뚝의 모습을 선명하게 묘사한다. 이러한 묘사는 윤동주 동시가 소재나 표현이 관념적이지 않고 현실 지향성을 드러내는 예이다. 현실 지향성을 통해 그의 동시는 환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고 실생활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윤동주의 동시에서 현실 지향성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장치는 그리움과 상실의 형상화이다. 이를 통해 형상화되는 모습은 단지 한 사람의 그리움과 상실에 머물지 않고 그의 이웃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된다. 다음에 제시되는 작품은 누나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누나!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히 왔습니다.

흰 봉투에
눈을 한줌 넣고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말쑥하게 그대로
편지를 부칠까요?

누나 가신 나라엔
눈이 아니 온다기에.

—「편지」, 전문

제목처럼 편지 형식으로 시작되는 이 시는 어린 화자의 편지 화법을 통해 누나에게 편지봉투에 눈을 담아 보내겠다는 애뜻한 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시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누나에 대한 투명한 그리움의 정서

16) 고희진, 앞의 글, p. 107.

를 형상화하기 위해 “흰 봉투”에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말쑥하게 그대로” 눈을 담아 보내고 싶은 어린 화자의 심정을 들려준다. 또한 시인은 “편지를 부칠까요?”라는 어린 화자의 대화적 어조를 통해 “흰 봉투”와 “눈”이 하나로 겹쳐진 소년의 그리움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인은 어린 화자가 살고 있는 현실과 그와 반대되는 공간인 “누나 가신 나라”를 통해 죽은 누나를 그리워하는 소년의 마음을 형상화한다. 다음에 제시되는 작품은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헌 짚신 짝 끄을고
나 여기 왜 왔노
두만강을 건너서
쓸쓸한 이땅에

남쪽 하늘 저 밑에
따뜻한 내 고향
내 어머니 계신 곳
그리운 고향집

—「고향집」 전문

이 시는 조국의 상실과 고향집에 살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비애를 이야기한다. “헌 짚신 짝”을 끌고 “두만강”을 건너 사람은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한다. 또한 시인이 고향인 북간도(北間島)¹⁷⁾라는 지명 자체만을 살펴보아도 목숨을 걸고 몰래 이주하여

17) 청나라는 봉금령을 실시하여, 이곳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만주에 들어가는 우리 민족을 월강죄라하여 사형까지 시키는 막중한 범죄로 다스렸다. 하지만 사람들은 두만강 속에 있는 사이섬(間島)에 간다는 핑계를 대며 배를 내어 몰래 강 건너의 비어 있는 우리 선조들의 땅에 건너가서 농사를 지었다. 그곳은 비옥한 토지로 농사가 절로 되는 곳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목이 제멋대로 우거진 땅에 불을 질러 밭을 만든 후 씨를 뿌려두었고 절로 자라서 수확기에 가서 추수해오면 되었다. 이런 곳이 바로, 간도이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는 일제의 만행을 피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주하거나, 민족 운동의 차원,

농사를 짓던 우리 민족의 삶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시는 고향을 등지고 나온 우리 민족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난다. 이 그리움 뒤에는 조국 상실이라는 현실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고향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며,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 시에는 그의 동시에 나타나는 현실 지향성이 내재한다. 그것은 고향으로 상징되는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인식이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비단 자신만이 느끼는 개인적 차원의 인식이 아니라 '나', '너', '우리'로 확대되는 민족적, 사회적 차원의 인식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작품은 가족의 이산으로 인해 생겨난 그리움과 상실의 아픔을 보여준다.

빨갯줄에 걸어 논
 요에다 그린 지도
 지난밤에 내 동생
 오줌싸 그린 지도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돈가?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 땅 지돈가?

—「오줌싸개 지도」 전문

윤동주 동시의 특징은 꿈과 환상의 세계를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생활 현실을 바탕으로 그리움과 상실의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점에 있다. 인용시 역시 이산으로 인해 생겨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다. 더 나아가 당시 우리 민족이 겪는 상실의 아픔을 이야기한다. 이 시에 등장하는 어린 화자는 지난 밤 어린 동생이 오줌 싸 이불을 빨래 줄 위에다 걸어 말리면서 헤어진 가족의 정을 이야기한다. 이 속에서 시인은 가난한 삶으로 인해 만주로 돈 벌러 간 아빠의 이야기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엄마의 이야기를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 나라 지돈가?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 땅 지돈가?”라는 해학적 표현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당시 우리 민족이 나라 잃은 슬픔과 생계유지를 위해 헤어져 살아야만 했던 삶에 대한 어려움과 이산의 아픔을 동시를 통해 들려준다.

이상에서 나타난 운동주 동시의 현실 지향성은 결국 상실된 조국의 아픔을 이야기한다. 이를 위해 그는 일상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움과 상실의 아픔을 형상화한다. 그래서 그의 동시는 꿈의 세계나 환상을 통한 상상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기보다는 일제 강점하의 사회적, 정치적 여건 아래서 이에 대응하려는 민족적 자각을 담아낸다. 이 속에 현실 지향성이 나타난다.

IV. 결론

운동주 시에 나타난 동시는 아동문학의 특성 중 하나인 꿈의 세계나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여건 속에서 이에 대응하려는 시인의 의식을 담고 있다. 그것은 그의 작품들이 보여준 민족적 생활 감정이 가족 상실의 아픔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상실의 상징적 현실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으로 드러난다.

이를 위해 운동주의 동시 세계는 동심 지향성과 현실 지향성이라는 두 개의 지향성을 축으로 보여주는데, 동심 지향성을 보여주기 위해 재치와 기지를 활용한 시작(詩作) 방법을 사용하며, 원초적 자연을 형상화한다. 이를 통해 그는 유년 시기 평화와 안정의 기억을 어린 화자를 통해 이야기함으로써 ‘순수’라는 민족적인 정서와 동심의 밝은 세계를 이야기한다.

한편, 운동주 동시에는 현실 지향성도 나타난다. 이를 위해 그는 일상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움과 상실의 아픔을 형상화한다. 그래서 그의 동시는 꿈의 세계나 환상을 통한 상상의 세계가 아닌 일제 강점하의 사회적, 정치적 여건 아래서 이에 대응하려는 시인의 민족적 자각을 담아낸다.

운동주의 동시 속에는 여느 다른 그의 시에서 나타나는 ‘순수성’과 ‘현

실 저항성'이라는 지향성이 동심 지향성과 현실 지향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그의 시에서 동시가 별개의 부분이 아니라 지향성의 차원에서 같은 연속성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운동주의 동시 세계를 요약한다면 민족적인 정서와 풍습을 통한 동심의 밝은 세계 그리고 조국 상실의 아쉬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다. 이를 토대로 그의 동시는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삶의 고통스러움에 대한 가벼운 시적 표현이 이루어진다.

<참고 문헌>

1. 기본 텍스트

권영민 편저. 『운동주 전집-1』, 문학사상사, 1995.

2. 단행본

김학동 편저. 『운동주』,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7.

_____. 『정지용 전집-1』, 민음사, 1991.

송우혜. 『운동주 평전』, 세계사, 1998.

이건청. 『운동주』,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4.

이재철 편저. 『세계아동문학대사전』, 계몽사, 1989.

3. 논문 및 평론

고형진. 『운동주의 동시 연구』 『어문학연구 제 5집』, 상명대 어문학연구소, 1997.

구경분. 『운동주 동시 연구』, 인하대 교대원 석사논문, 1996.

김수복. 『운동주의 동시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일지사, 1980.

김열규. 『운동주론』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1964.

김홍규. 『운동주론』 권영민 편저, 『운동주 전집-2』, 문학사상사, 1995.

신현봉. 『운동주의 동심지향성 연구』, 한양대 교대원 석사논문, 1986.

최동호, 「윤동주 시의 의식 현상」, 권영민 엮음, 『윤동주 전집-2』, 문학사상사, 1995.

4. Internet Site

<http://www.masilga.com/philosophy/concept/concepts02.asp#1>.